

데미안 허스트, 부르주아... 세계적 거장을 만나다

삐딱 마른 인물상으로 유명한 자코메티, 실크스크린을 이용해 스타들의 초상을 복제해온 앤디 워홀, 거대한 거미를 소재로 한 작품 '마방'으로 유명한 부르주아...

전 세계 스타급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지역 미술팬들을 찾아온다.

광양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리움미술관 순회전 '인간, 일곱개의 질문'전을 오는 24일부터 5월29일까지 진행한다.

국내 최고의 사립미술관으로 꼽히는 리움미술관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3개월간 개최한 재개관 기념전 '인간, 일곱개의 질문'전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화제를 몰고 다닌 전시로,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획전이다.

이번 리움미술관 순회전은 문화의 지역적 균형 발전과 상생에 기여하려는 리움미술관과 전남도립미술관의 의지가 서로 부합돼 성사된 것으로 2004년 개관한 리움미술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전시를 다른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이경희 컬렉션 중 김환기·오지호 등의 작품 21점을 기증받아 특별전을 개최했다.

전시에서는 자코메티, 이브 클렝, 매튜 바니 등 세계적인 현대미술 거장과 이블, 정연우, 이경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40여 명의 작품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리움미술관 소장품과 서울시립미술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작품을 아우른다.

전시작은 자코메티의 청동 조각 '거대한 여인III'(1960), 출근하는 여섯 사람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생활의 무게를 표현한 조지 시겔의 '러시아워'(1983), 앤디 워홀의 '마흔다섯 개의 금빛 마릴린'(1979), 자신이 개발

'인간 일곱개의 질문' 리움 순회전

24일~5월 29일 전남도립미술관 이브 클렝·이블 등 40여명 100여점

한 파란색 물감 'IKB'를 몸에 묻힌 모델들이 자신의 몸을 종이 위에 찍어낸 이브 클렝의 대표작 '대격전'(1961) 등이다.

또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으로는 예수의 승천과 열 두 사도의 죽음을 주제로 한 '사도' 연작 중 하나인 '성 마태의 순교'(2002~2003)를 전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주명덕이 2004년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예술가 시리즈'에서는 천경자·김기창·이불 등 다양한 세대의 작가 19명을 만날 수 있다.

'인간, 일곱 개의 질문'전은 급변하는 지구 환경과 유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는 전시로 인간에 대한 예술적 성찰, 문명의 분기점에서 인간이 맞이한 곤경과 미래 전망들을 7개의 주제로 풀어냈다.

'거울 보기' 섹션에서는 다양한 예술가들의 자화상과 초상을 통해 예술에서의 자아 성찰적 시선을 들여다보며 '펼쳐진 몸'에서는 미술에서의 인식변화 과정을 거쳐 표현 매체 자체가 된 '몸'의 예술을 조명한다. '일그러진 몸', '다지기 쉬운 우리' '모두의 방'에서는 문명화된 인간의 이면을 들여다보며 나와 공동체의 문제 등을 다룬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초월 열망', '낯선 공생'에서는 인간과 자연, 동물, 기계 등 비인간의 낯선 존재들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미래를 상상해본다.

전시장 구성은 기존에 전시됐던 리움미술관의 공간 디자인을 참조, 전시 방향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리움 순회전에는 별도의 입장료가 적용된다. 성인 5000원, 어린이·청소년·대학생·군인·예술인 1000원이며 전남도민은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Human 7 questions

조지 시겔 작 '러시아워' <리움미술관 소장> © The George and Helen Segal Foundation, 사진 : 한도희

10월 '야수파 거장' 루오 작품도 만나요

전남도립미술관, 올해 다양한 기획전 오지호 등 14명 작가 '태양에서...' 전 강운·박치호 개인전...이경모 회고전

'야수파 거장, 화가 루오를 만나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리움미술관 순회전(2월~5월)을 비롯해 올 한해 다양한 기획전을 준비 중이다. 눈에 띄는 전시는 10월에 열리는 '조르주 루오' 전이다. 'Forme, couleur, harmonie'를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색채의 연금술사'로 불리는 야수파의 대표주자 루오(1871~1958)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개막해 올 3월까지 이어지는 '태양에서 떠나올



알베르토 자코메티 작 '거대한 여인 III' <리움미술관 소장> © Alberto Giacometti Estate, 사진 : 한도희

때'전은 태양 빛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심도 있게 관찰했던 한국 근현대 거장들의 작품 등 근현대 시기부터 동시대까지의 전남 미술사 흐름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참여작가는 오지호·윤재우·양수아·임직순·고희홍·정형렬·최중섭·우제길·손봉채·송필용 등 14명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매칭 사업과 연계한 전시도 눈에 띈다. 전남 지역 출신 작가들과 함께하는 기획전으로 강운 작가의 '운운하다' 전(4월~6월)과 박치호 작가의 개인전(6월~9월)이 열린다. 또 7월에는 '아트&테크놀로지'전이 개최되며 7월부터는 강진 출신 작가 윤재우 회고전, 9월에는 사진작가 이경모 회고전이 열릴 예정이다.

그밖에 상설전시로는 이경희 컬렉션을 비롯해 기증작을 만날 수 있는 '기증작품전'과 '소장품전'을 이달에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시인 이동우 '담쟁이' 외 선정



함평 출신 조영관 시인(1957~2008)의 뜻과 삶을 기리고자 제정된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제9회 수혜자로 이동우(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담쟁이' 외 9편이며 상금은 500만원.

조영관 문학창작기금 운영위원회는 제12회 문학창작기금 수혜자로 이동우 시인을 선정했다.

고 17일 밝혔다. 김남일·하명희 작가, 박일환 시인, 김대현 평론가 등 심사위원들은 '현실의 모순과 대결하며 걸려온 장력에서 비뚤한 이동우의 시는 직정(直情)의 힘이 있다'며 '비극적인 현실을 다루면서도 선부는 희망이나 어슬픈 위무 쪽으로 흐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절충과 타협에 대한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이동우 시인은 지난 2015년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했다. 이 시인은 '이 시대의 질곡과 우리 일상의 모순에 맞서는 건 조영관 시인을 따르는 후배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창작기금은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2007년 세상을 떠난 시인 조영관의 뜻과 삶을 기리고자 제정됐다. 수여식은 오는 3월 5일 마석 모란공원 민주묘지 조영관 묘비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8206-243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광산여성새일센터

여성인턴제 참여자·기관 모집

광주광산여성새일센터(김명화 센터장)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의 직장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여성인턴제 참여자(기관)를 모집한다.

여성인턴제는 여성인력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과, 능력과 취업의지를 갖춘 취업희망여성과의 연계를 통해 3개월의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직장 적응을 위해 마련됐다.

기업에게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인력채용에 대한 일정부문의 급여를 지원한다. 3개월 인턴기간동안 월 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인턴 채용 후 9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턴 참여 여성에게도 9개월 이상 근무 시 장려금 6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산여성새일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457-5417)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f621@kwangju.co.kr

'전환의 시대 포용과 공존'

전남대, 오늘 국제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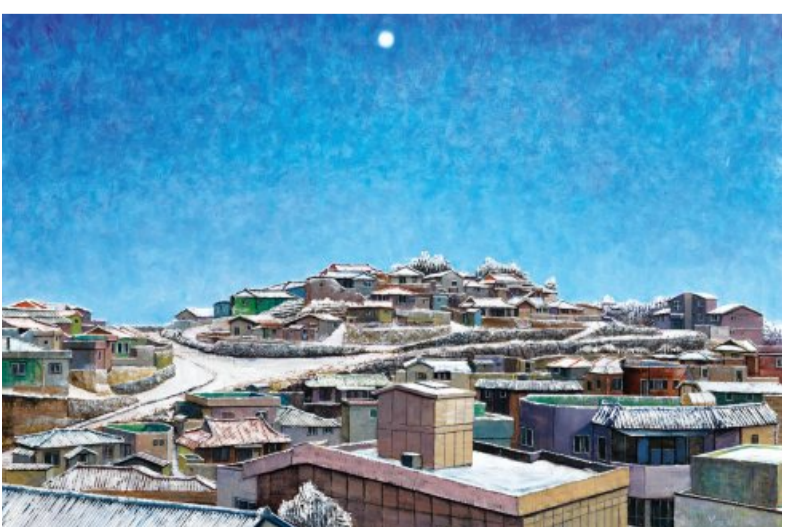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소수자의 소외와 차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존', '포용' 같은 용어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전남대 4단계 BK21 국제이주와 디아스포라 혁신인재 교육연구단(단장 김경학)과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가 (사)제외한인학회, 한양대 글로벌문화연구원과 공동으로 18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환의 시대 포용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는 10개국(한국, 네덜, 러시아,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호주) 50여 명의 관련 전문연구자들이 참가한다. 주요 의제는 '국제이주와 젠더',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모국 연결', '재외동포 귀환과 모국', '초국적 문화정체성과 사회 결속'이다. 학문후속세대 발표로 진행되며 모두 21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구체적인 발표 논문은 '성소수자 이민자의 가족 돌봄', '겔프 국가에서 네팔 여성 이민자의 경험', '팬데믹 상황에서 디아스포라의 사회·정치적 참여' 등이다. 문의 062-530-270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쓸모없는... 그러나 아름다운' 양나희 초대전, 3월 6일까지 전남대병원 갤러리



삶, 풍경

서양화가 양나희 작가는 버려진 골판지를 활용해 작업한다. 일회성 포장재로 쓰고 버려지는 골판지 등은 그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이야기를 품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환원된다.

작품들은 도시 소시민들의 일상 삶의 공간과 서정을 실감나게 담아내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양나희 작가 초대전을 오는 3월 6일까지 전남대병원 1동1층 CNUH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쓸모없는... 그러나 아름다운(Useless... but Beautiful)'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양 작가는 '종이부조 회화' 14점을 선보인다.

양 작가는 골판지의 종이재질이 갖는 부드러움과 고른 골들이 만들어내는 두께와 음영을 이용해 입체감 나는 부조 효과를 살리고 그 위에 사실적으로 풍경을 그려낸다. 양

작가의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따뜻함이 느껴진다. 소외되고 버려지고 잊혀진 것들에 대한 한 없는 애정과 연민을 담아 그가 그려낸 정겨운 골판지 풍경, 별무리 지는 달동네 모습은 한 편의 시처럼도 읽힌다.

또 대량소비와 물질만능주의가 모든 것을 휩쓸고, 빠른 속도로 변하고 사라져가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는 지 질문을 던진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한 양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상해 운아르페 레지던시 작가로 활동했으며 광주미술상, 전남미술대전 대상, 남농미술대전 대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지역 유명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